군산 컨테이너터미널 물동량 39%↑

〈전년대비〉

대표이사 공모 · 신규항로 개설 · 포트세일 · 인센티브 지원 등 성과… 물동량 확보 지속 추진

지난해 군산컨테이너터미널 물동량이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등 해운업의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이하 'GCT') 대표이사 공모제 시행, 신규항로 개설, 포트세일,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물동량이 전년대비 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최근 해수부의 부두임대료 25% 감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50%→70%) 결정 등이 GCT 경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2016년에 GCT의 대표이사 선출방식을 '민간3사의 순번제⇒ 공모제'로 변경하는 등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GCT 설립 이후 11년 동안 민간3사의 순번제 대표이사로 운영돼 독립적인 경영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책임경영이 부족해 경영부실이 지속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전북도는 대표이사 선출을 공모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군산시, CJ대한통운, 세방, 선광과 협의해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공모제로 대표이사를 선출함으로써 경영독립성 확보와 책임경영 확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군산~닝보~상해 신규항로 개설, 기존항로 항차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GCT의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이 2만203TEU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하는 등 향상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GCT의 체납된 부두임대료(21억원) 문제로 부도 위기까지 처했으나, 이사회 및 간담회를 7회 갖는 등 민관이 협력한 결과 민간3사의 자금 지원으로 부두임대료를 납부하기로 결정하여 부도 위기를 넘겼다.

전북도, 군산시, GCT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에는 해수부에서 군산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해 부두임대료 25% 감면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확대(50%→70%)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GCT는 부두임대료 2.3억원이 절감되고, 선사 및 화주는 선박입출항료 등 군산항 이용 비용이 경감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해에도 군산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해 신규항로(베트남 하이퐁 등) 개설, 군산항 민.관 합동 포트세일 등을 통해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지난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7 재경도민 신년인사회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송현섭 재경도민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2020년 전북의 대도약' 위해 힘 모으자

재경전북도민 신년인사회… 김현미 · 김병관 의원 자랑스런 전북인 상

송하진 지사를 비롯 '2017년 재경도민 신년인사회' 참여인사들이 '2020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도에 따르면 '2017년 재경전북도민 신년인사회'가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일보사, 전북출신 공직자 모임인 삼수회 주관으로 지난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전현직 장차관 및 국회의원, 시장.군수, 기관.단체장 등 전북출신 각계각층 인사 및 재경도민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새해 전북의 웅비와 2020 대도약, 고향발전을 위해 힘 모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내빈소개, 주요인사 새해 인사, 자랑스런 전북인 상 시상, 전북출신 고시합격자 격려, 도정 홍보영상 상영, 건배제의 및 덕담 순으로 진행됐다.

자랑스런 전북인 상 시상에서는 공공부문에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업경제부문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선정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전북 예산확보에 조력한 공로로, 김병관 의원은 게임업계 CEO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창업활성화 위해 노력한 공로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16년 고시합격자 9명에게는 격려금과 꽃다발이 전달됐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는 전북방문의 해로,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이 본격 궤도에 올라 성과를 구체화하는 결실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FIFA U-20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와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 결정 등을 통해 경제유발효과와 전북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해"라며 "절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는 '절문근사(切問近思)'의 자세로 소통과 협업,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하면서 도정 현안을 꼼꼼히 챙겨 2020년을 기점으로 전북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지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안재용 기자

김태수 교육장

박숙자 교육장

정동일 교육장

주광순 교육장

김태수 교장 등 4명 교육장 임용 내정

박숙자 교장 · 정동일 교장 · 주광순 부장… 3월 1일자 예정

전북도교육청이 김태수 전주온빛초 교장 등 4명을 3월 1일자로 교육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일 도교육청은 김태수 전주온빛초 교장, 박숙자 전주중앙초교장, 정동일 난산초 교장, 주광순 전북교육연구정보원 부장을 교육장 임용예정자로 확정짓는 교육장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수 전주온빛초 교장은 만57세로 남원교육청 장학사와 전주교육지원청의 장학관을 지냈다. 박숙자 전주중앙초 교장은 진안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청 장학사를 지냈다. 정동일 난산초 교장은 도교육청 장학관과 이리동초 교장을 지냈다. 주광순 전북교육연구정보원 부장은 문창초 교감과 군산금광초 교장을 지냈다.

향후 전북도교육공무원 인사심사위원회의 임지배정에 따른 적합성 검증을 통해 교육장 임지를 배정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정 빅데이터 활용 체계적 추진

빅데이터 전담팀 신설

전북도가 빅데이터 전담팀을 신설해 도정에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7월 빅데이터 활용과 기반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도지사 주재로 협업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빅데이터 시범과제를 선정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올 초 빅데이터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다.

전북도는 올해 '전북형 빅데이터 시범과제'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협업체계 구축, 역량강화 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시범과제'는 도민안전, 귀농귀촌, 장사시설 분야 등 3개분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중심의 정책수립 지원과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북도 빅데이터 기본계획은 2017부터 2021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 추진방향을 담아 수립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시군 등과 도내 '관계기관 빅데이터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행자부.미래부 등 중앙부처와 전북.서울.경기 등 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공공 빅데이터 협의회'에 참여해 빅데이터 협업사업 발굴, 데이터 활용을 위해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 소양 교육, 전문가 초청강연.토론회 개최, 공무원 교육원의 빅데이터 활용과정을 입문/중급 등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해 도, 시군 공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부안 오리농가서 AI 발생

한동안 잠잠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 계화면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AI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농가는 2만6000마리의 오리를 사육중이며, 출하 전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 농가의 오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안재용 기자

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전북도는 설을 맞아 재난위험시설 60개소와 다중이용시설 53개소에 대해 2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시설물 담당공무원과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특히,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AI 방역대책 추진사항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